

GS칼텍스, 2007년 임금동결 합의

GS칼텍스 노사가 2007년 임금동결에 합의했다.

GS칼텍스 노사는 3월29일 여수공장 본관에서 생산본부장인 허진수 사장과 박주암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 조인식을 갖고 회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.

특히, 노조가 먼저 2007년 임금동결을 건의했고, 회사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 GS칼텍스 노조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임금조정 결정을 회사에 위임한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07/03/29>